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이기원, 김선우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chin2002@hanmail.net

백신에게 듣는다<열세번째>

봉선사 월운스님 초청 열린 법회

- 주제 : 법화경 독송구국당
- 일시 : 불기 2548(2004)년 3월 20일(토)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월운스님 약력

- ▶ 경남 해남군 화방사(花芳寺)에서 출가
- ▶ 봉선사 주지 역임
- ▶ 중앙승가대학 교수 역임
- ▶ 불경서당과 불교전문통신강원 설립운영 중
- ▶ 동국역경원장(현)
- ▶ 봉선사 능엄학림 강주(현)
- ▶ 봉선사 조실(현)



“경기불교문화원 개원 2주년 기념으로
새봄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혜은의 작은 음악회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3월 20일(토) 오후 6시
- 장 소 : 경기불교문화원
- 출연진 - 소프라노 : 김혜은
피 아 노 : 이정은
- 찬조출연 - 불자가수 : 문명하
한국무용 : 이순자

3월호



수미산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금당 진 철 희 / 경기불교문화원장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많은 중생이 삶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한가.
나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을 나가는 것이니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 (오분율)

불기 2548년 출가 열반절을 맞이하며 기도와 참회 정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부처님이 이 땅에서 머물고 가신 걸음걸음을 살피며 그 삶을 배우고자 이렇게 좋은 도량처를 만들고 정진 하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불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찾으려고 해매고 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존경하는 문화원 가족 여러분!

경기불교문화원이 개원한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불교문화가 척박한 이 고장에서 김태제 이사장님의 원력과 재가 불자들의 신심으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불법 홍포에 전념한 결과 서서히 가시적인 광명이 비추기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찰환경답사”와 “백인에게 듣는다”를 비롯한 7개의 전문 불교 강좌와 8개의 문화강좌가 큰 축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작은 원이 있다면 이렇게 좋은 강좌들을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이 땅에 불국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적극적인 불국토 사업 가무를 전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문화원 가족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문화원 가족님 여러분!

별써 먼 산의 아지랑이에 봄내음이 묻어납니다.

지난겨울에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삼보사찰을 순례하면서 길에서 태어나시어 고뇌하시고 길에서 수행하다 성도를 이루시고 길에서 법문을 하시다 열반하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진을 하다보면 그동안 나약 하였던 삶과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다시 온몸에 환희심이 가득 차서 초발심으로 되돌아 가곤합니다.

불교 용어 중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은 마음 따라 이끌리고,

마음 따라 지배되며,

마음에 의해 만들어 진다”라는 뜻이므로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마음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가슴에만 두지 말고, 밖으로 표현하여야만 진정한 불자라고 믿습니다.

먼 산에 하얀 눈이 노란 꽃과 붉은 꽃들이 만발할 때 많은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기다리며 불교문화원을 아껴주시는 회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금당 합장

경기도

송광사 새벽 예불

도량석 큰 울림에 삼좌만상 깨어나고

용트림 목어 소리 어두움 몰아내니

장중한 지심귀명례 대웅세존 반기네

- 하늘아이-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불교기초교리 개강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강사 : 전문법사

기간 : 14주(50,000원)

기도하는 마음

보현진열스님

올해는 갑신년이요, 동물로는 잣나비로서 7월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서
이리저리 뛰어 노는 푸른 원숭이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여전히 더운
시기지만 그래도 가을걷이를 앞두고 하늘과 들판이 풍요롭고 넉넉해진
다. 무루익어 가는 가을을 꿈꾸며 비전을 갖는다.

1884년 갑신년엔 갑신정변이 있었고, 1944년 갑신년엔 해방 전년으로 소용돌
이가 극을 달하던 때였으니, 올해는 그런 정변이나 소용돌이 못지 않게 묵은 때는
떠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도는 송구영신의 해인가 보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환골탈태가 이루어지는 판갈이 격동기라고 일
단 진단하고 싶다.

2월 4일은 입춘이며, 전국 각 사찰에서는 의례 하듯 입춘 기도 법회를 하곤 한다.

동지에서 음이 다하고 양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이제 양이 3, 음이 3 이나 되는 그런 음양의 적절한 조화의 기운이 감도는 시
점이 바로 입춘이기도 하다.

음양적 설은 동지이지만 정식으로 양의 지배가 시작하는 것은 입춘부터다.

동지엔 1양 5음이고, 소한에선 2양 4음이다가, 입춘이 되면 3양 3음으로서 양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는 때이니, 양의 상징
인 봄이 됐다 해서 입춘이라 한다.



봄은 시작이요, 만이요, 어른이요, 모범이니, 이는 하늘의 뜻을 받아 인세人世가 열리는 서막이기도 하다. 하늘엔 북극성을 중
심으로 한 옥황상제님이 계시고 이를 옹위한 북두칠성이 있으며, 이의 황명皇命을 하달 실행하는 28수宿가 있어, 천체가 한
치도 어김없이 춘하추동 사시四時와 낮밤 주야晝夜를 주관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옥황상제님의 뜻을
받아 가정과 사회 및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인데, 그 첫 출발이 바로 입춘이다.

하늘의 황명을 받아 인세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거 우리 문화의 전통이요 뿌리 깊은 사고 방식이었기에, 조상들은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늘의 길조가 우리 집 대문에 임할 것을 기원했다. 그 황은皇恩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대문에 '입춘 대길, 만복래입'
이라 쓴 부적을 내걸었었다. 이런 전통이 서구화의 흐름 속에 서서히 사라지고, 겨우 절에서나 입춘 기도란 의례 속에 살아
남아 그나마 그 전통을 잇고 있다.

그래서 입춘 기도란 서구적 생각에서 비롯되는 간단한 희구希求나 민속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깃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라는 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입춘은 곧 시작이니 모든 인간 세상의 운명이 시작되며, 따라서 음양으로 묵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자리잡는 교체기로서, 우리의 각별한 결심과 다짐을 요구하는 때라서, 절에서는 예로부터 불보살전에 기도
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나는 조그마한 도량에서 인연 있는 불자님들과 입춘의 다짐을 하는 기도 법요를 가졌다.

올해엔 범피, 말피, 개피가 삼재三災 드는 해라서 삼재 소멸 기도도 함께 봉행했다.

삼재는 누구나 9년마다 돌아와서 3년간 천재 인재 지재를 남기고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삶의 터전에서 삼재란 무서
운 것이어서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불보살님의 가호를 빌어 안녕케 하려고 했던 것에서 입춘 기도가 시작됐으리라 믿는다.

그런 전통을 따라 여법하게 부처님 앞에 인연 있는 불자님네의 갑신년의 발복을 축원했다.

믿고 실행한다는 행위에서 입춘 기도와 축원의 의미가 있다.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교 행위가 그러할진데, 우리 불자들은 겸허하게 불보살님네의 가피하심을 굳게 믿고 올해
를 살아가야겠다. 이런 사고 방식과 배경은 저 《화엄경》이나 《법화경》등에 근거한다. 아무리 서구적 망령妄靈이 휩쓸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옛것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개기
교들

- 나무 관세음 보살!

경전강좌 (초발심자경문)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사 : 설오스님
기간 : 3개월 과정(4주 20,000원)

요가반

매주 월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강사 : 오후 - 김영옥
기간 : 3개월 과정(90,000원)



스리파다 등정기

조 남 종

매 순간 소중하고 행복했던 곳, 스리랑카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그 여운이 언제쯤이면 지워질지... 작년에 다녀와서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발자취가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잊지 못했던 스리랑카. 원장님의 권유에 못이기는 척,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만사를 제쳐놓고 용기를 낸 결과, 정말 가장 행복했고 보람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과 같은 일행인 우리도반이 함께했기에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우리도반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리랑카를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왜냐면 짧은 글 솜씨로 어느 구석 한 면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스리랑카 나라전체가 성지요, 동화속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있으면 안되는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대로 나라 안 전체를 옮겨 놓은 듯이 아름답다. 10박11일 길지 않은 일정을 다니면서 지루하다거나 고생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정말 행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우리일행이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부처님의 족족이신 스리파다를 친견하게 된 것은 아마도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새벽2시에 출발해서 해발2300m의, 백두산과 한라산의 정상보다 높은 4천여개의 돌계단이 넘는 계단을 한발 한발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면서 딛는 것이 힘겨워 하는 저에게 다시 한 번 신심을 내라고 손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도 중간에 포기했으리라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힘겨워 간신히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는데 네발로 엉금엉금 기어오는 사람이 있다. 다름 아닌 서순덕 보살이 양우산 지팡이 두발과 함께 네발이 되어 올라오고 있었다. 원장님은 서순덕 보살이 올라오니까 둘이 친구되어 올라오라시며 부지런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셨고 우리 둘이 서로 위로하며 쉬며 힘겨운 발걸음을 부처님께 한발 한발 다가가면서도 뒤쳐져 있는 우리 일행들이 걱정스러워진다. 건강한 우리들도 이렇게 힘겨운데 일행중에는 건강이 좋지않으신분도 계시고 노보살님도 계시고 체력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 모두들 포기하지 않고 올라오기를 마음속으로 빌며 올라가고 있는데 노래를 지도하고 계시는 김선생님이 올라오고 계셨다. 선생님 말씀이 올수도 안올수도 없기에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에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올라오셨다고 땀이 뒤범벅이 되어 우리와 합류 동행했다.

정상이 머지않을 것을 서로 위로하며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강거사님과 윤보살님이 올라오셨다. 두 분은 아직 기력이 생생해 보였다. 반갑게 생각이 된다. 부처님이 계신 불족산의 스리파다를 체력의 순서로 올라왔다. 골든벨을 세 번 울리고 부처님의 족족이신 스리파다 친견하면서 저 가슴 밑바닥에서 그무엇인지 울컥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올라오는 과정이 힘겨워서 그렇지는 않고 지나날의 회한과 힘겨웠던 일순간 모두 가슴에 저미며 어머님의 가슴이 포근하면 눈물이 나는것처럼, 부처님의 앞이 포근함이 내 마음을 적셨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포교당 주지스님의 기초교리시간이면 어김없이 스리파다를 이야기해주신 것들이 되살아났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제일의 성지로 정해놓고 맨발로 일년에 한번은 꼭 다녀갔다는 스님의 말씀. 스리랑카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는 듯하다. 우리일행은 천수경과 탐돌이를 하면서 한분 한분 합류했다. 한분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들 정상에 올라오셨다. 모두에게 감사하다. 해발 2300m의 고지는 한겨울 땀칠 정도로 춥다 모두들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부처님 친견 뒤로하고 대지를 환하게 비추어질 여명을 기다리며 동쪽하늘을 한순간의 찰나도 놓칠세라 기다리고 있었다.

밤과 낮이 교차되는 미묘한 시간이다. 환히 비추이던 밝은 달이 어슴푸레 빛을 잃고 동쪽하늘의 붉은 빛을 발하면서 어두웠던 대지를 밝은 빛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온 불족산의 일출을 보는 순간 1월1일 포교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팔달산으로 일출을 보러 갔는데 구름이 잔뜩 끼어 일출을 못보고 돌아섰던 그 아쉬웠던 순간이 뇌리를 스치면서 부처님과 함께한 불족산의 일출과 스리파다의 모든 추억 영원히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으리 또한 우리 일행 모두에게는 올 한 해가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부처님을 친견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하산했다.

성불하세요.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 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호원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이 옥 자

031)297-3077/ 3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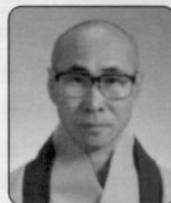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283



법문

생 · 활 · 불 · 교

오늘은 생활불교이지만 이젠
새 생활발원이라고 합니다.
탐내지 말고 양보하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인내 하겠습니다.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겠습니다.
다투지 않고 화합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욕하지 않고 칭찬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방해하지 않고 협력하겠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베풀겠습니다.



원광스님

欲更上一層樓
欲窮千里目
山行記
陽正二〇四八・一・七

먼저 새로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살겠
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오늘은 생활불교이지만 이젠 새 생활발원이라고 합니다.
탐내지 말고 양보하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인내 하겠습니다.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겠습니다. 다투지 않고 화합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욕하지 않고 칭찬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방해하지 않고 협력하겠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베풀겠습니다.
- 마하 반야바라밀

이것을 상거지 스님이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
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읽었던 발원문인데 새생활발원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생활 속에서 불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 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교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을 세워 성취를 이루고자 할 때는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
로 하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간곡히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 물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확고해야 합
니다.
원이 확고한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겠지요. 원이 확
고하면 부처님께 방법을 알아봐야겠지요.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꼭 원한다고, 부처님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하시면, 부처
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확고히 대답해야지요. 불교
는 “실참실수”라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기분 나
는 대로하거나 하고 싶은 감정대로 살면, 꼭 선(善)보다 악(惡)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사람당 혼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3혼칠백)
삼세재물이 이구동성으로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양하시되 10번만
염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악을 짓더라도 모두 극락세계로 데려가서
제도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된 사람의 후보입니다. 부처님 앞으로 가기로 약
속된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생활은 정각(正覺)을 위한 正道
行을 說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머리에 들어가서, 그것이 실감화 되어 실참실수 차
원으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지식이 들어가면 실참실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
만 아는체하게 되지요.
정각이란 무엇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생각을 이룬 분입니다.
함부로 정각을 설명 또는 해석해서도 안됩니다.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입니다.

아함경 中,
정각을 무상과 무아의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무상은 변하는 것이고 무아는 내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만... 확인하기전의 접근방법은 일단 믿
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 믿음이란, 부처님께서 나를 배신하시더라도 내가 부처님을
원망하고 배신감을 느끼
지 않는 상태를 제대로의
믿음이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경이
불교

가족은 부처님!



조계종 포교사/ 불교미술의이해 강사

권 중 서

H.P 011-9279-1401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이 화 정

생삼점불
감자탕

대표 박 애 숙

남문 팔달로 1가
TEL. 031)244-0777



위빠사나 수행은 왜 시작 했나

황영채

“넌 수행을 왜 한다고 생각하니?”

위빠사나 수행을 하니 좋더라고 한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나에게 묻는 말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질문을 받고나니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왜 나는 친구에게까지 권할 정도로 소위 수행이란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것도 요즘 한창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빠사나 수행의 어떤 점이 나를 이렇게 빠져들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저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나는 일상의 괴로움을 이길 수 없어 수행의 길을 택한 것 같다. 그렇다고 나에게 유별나게 삶의 고통이 많은 것도 아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남들에게는 많으나 나에게 없는 것들, 태어나면서 갖고 난 것들,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것들, 이런 크고 작은 고통들을 유달리 싫어하는 나의 성격 탓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일상의 이런 괴로움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강한 편이다. 그리고 보니 부처님은 “태어남이 고통이요, 오온(五蘊)이 고통”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고통을 빠져리게 하는 사람만이 수행을 한다고 하셨다. 화가 날 때는 화나는 그 자체도 괴로움이지만 화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것 또한 괴로움이다. 탐심이 나면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괴로움 보다 그 탐심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이 더 괴롭다. 심지어 나의 경우,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이 지루하여 괴롭다. 그래서 나는 수행의 길을 택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화를 잡고 탐심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그래서 부처님께

서 라면 이 같은 탐진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가 나의 주된 관심사였다. 한 동안 그 실마리를 풀어준 것이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應無所住) 以生其心”이라는 문구였다.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이 경을 독송하였다. 그러나 이 문구도 역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또한 무주상보시(無住相報施) 즉, “보살은 대가없는 보시를 한다”는 대목에 가셔도 역시 어떻게 라는 문제가 나온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그 방법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알고 보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셨다. 아니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그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고집멸도(苦集滅道) 즉, 4성제가 바로 그 말씀이다. 태어남이 고통이요, 삶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이 고통을 알고 나면 그 원인을 알게 되고 원인을 알면 없애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없애는 방법이 바로 8정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8정도의 핵심이 다름 아닌 위빠사나 수행이다. 위빠사나 수행은 “알아차림(사피)”을 주된 과제로 한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고 하였다. 그것이 신수심법(身受心法) 4년치 수행이다. 여기서 바로 “어떻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탁월하고 그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한 위빠사나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다.

사랑과 자비는 어느 종교에서나 주장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자비의 마음을 낼 것인가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가없이” 사랑하고 자비심을 낸다는 문제에 들어가서는 방법이 없다. 어떤 경우라도 “나”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통하여, 탐심은 관용으로 진심은 자애로, 치심은 지혜로 바뀌는 방법을 일러주셨다. 그것도 직접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위빠사나 수행법인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무상, 고, 무아의 3법인을 깨닫고 열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다.

또 한가지 이 수행이 좋은 이유는 일상의 알아차림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수행을 하려면 시간도 장소도 따로 마련하여야 하였지만 위빠사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있는 한 어디서든 수행이 가능하다. 오직 마음을 가다듬어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길을 때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 먹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어느 때든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에서 하였던 일상의 알아차림인 것이다. 이 수행의 좋은 점을 이루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상 두 가지만 하여도 위빠사나 수행을 할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부처님도 위빠사나 수행을 통하여 성도를 하였고 제자들에게도 오직 이 법과 수행을 의지처로 하라고 유언을 하셨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수행을 통하여 많은 번뇌를 해결하였다. 번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번뇌는 번뇌일뿐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몸도 건강하다. 그리하여 이 수행을 친구에게도 권하게 된 것이라.



후원금과 회비를 내주신 분들(불기 2048(2004)년 1월~2월)

금액 2,675,000원)

강영진	김기현	김대성	박선현	윤영무	이영옥	조창윤	최귀미
강재수	김향숙	김병옥	심혜숙	양준영	윤기수	장용집	최정자
김미월	구광국	권중서	신선희	이상범	양재홍	주영월	최숙력
김영희	김말수	권승하	이기순	이기원	윤광숙	장옥훈	최우석
김은희	김준옥	박경아	이선우	이임성	임종란	조권형	홍인숙
김순자	김정숙	박정용	이화순	이옥자	염규용	진철희	현병국
김의순	김영동	방옥화	이대곤	안영찬	정무근	최명길	한경숙

위빠사나 수행으로 성불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강사 : 황영채 3개월(60,000원)

재미있는 역학교실(3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 보현 진열(철학박사)
기간 : 12주(100,000원)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열한번, 열두번째)

열린 법회 개최

날이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백인에게 듣는다” 원광스님 초청(열한번째) 열린 법회가 지난 1월 17일 “생활불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법회가 있었으며, 2월 21일에는 “육바라밀 실천 수행” 주제를 가지고 일원스님 초청(열두번째)하여 열린법회가 경.불.원 큰법당에서 여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 사찰환경 답사 (1월, 2월)개최

불교의 산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찰환경답사가 순천 승보사찰 송광사, 양산 불보사찰 통도사, 합천 법보사찰 해인사(1월),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2월)에 각기 현지에 있는 민속 문화와 음식등과 어우러져 개최되었습니다.



● 수계법회 및 다도 기초 교리반 수료식

제1회 수계법회 및 제3기 다도 기초 교리반 수료식이 지난 2월 7일 경.불.원 큰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수계법회는 계율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가족 불자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편 정무스님은 '계를 받는 것은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약속'이라며 '계를 받은 불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불자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잊지 말고 신행생활과 포교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3월 행사 안내



■ 실미도에서 천도재

31명의 684부대원들의 영혼을 위한 천도재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3월 21일(일)
- 장 소 : 무의도, 실미도, 국사봉, 인천용화사
- 출발지 : 수원포교당 입구 매향다리 앞 오전 7시
- 동참금 : 3만원(중식/여행자보험/간식/입장료포함)

■ 제 3회 정기총회 안내

지난 한 해 동안 본원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회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고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4(2548)년 3월 20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 안건 : 1. 2003년 예산 결산 보고 및 2004년 예산 승인 / 2. 2004년 사업 보고 및 사업승인(안)
- 3. 기타 : 신규임원 승인

■ 신규 강좌안내

설오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강좌

- 내용 : 설오스님의 “초발심자경문”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 5개월 과정 100,000원

연극아카데미

- 개강일시 : 불기 2548(2004)년 3월 6일(토) 오후 2시
- 대상 : 중, 고등학생
- 수강료 : 4개월 과정 100,000원

파스타 하우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1-5
중동BD 2F T.031-255-8843

다도기초반

5개월 100,000원
강사 : 윤영예
매주 화 오전 10시

불교미술의 이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강사 : 조계종 포교사 권중서
기간 : 3개월과정(60,000원)

봄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노래교실	김혜은 최종선	20명	3개월 60,000원	찬불가 및 노래부르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시
	위빠사나	황영채	20명	3개월 60,000원	위빠사나 수행법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초교리	전문법사	4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수시
	불교문화 교실	권중서	20명	3개월 60,000원	불상, 석탑, 탕화, 범종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
	경전강좌	설오스님	30명	5개월 100,000원	초발심자경문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월개강
문 화 강 좌	발건강 관리법	안옥순	20명	3개월 100,000원	발건강 관리와 족압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월개강
	요가반	김영옥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3월개강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90,000원	단월드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반	윤영예	20명	5개월 100,000원	생활차예절법 다경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월개강
	우리춤 배우기	이순자	20명	5개월 100,000원	기본부, 살풀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월개강
			20명	12주 300,000원	명리전문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중국어회화	이영옥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중국어회화	매주 월/목요일 오후 2시	초, 중등생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수시
	경락반	고철성	20명	3개월 6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신규(초급)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수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사찰 환경답사	매월 첫째주 또는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	중식/간식/ 보험료/ 입장료포함
	연극 아카데미		20명	4개월 100,000원	연극아카데미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월개강

■회원이입안내

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문화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 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